



Monthly Report 5月
그래도 괜찮아



목차

5월 일정

끼띠 소개 ver.3

Youth Develop Program

Community Develop Program

쉬어가는 코너1

레스토랑

중간평가

쉬어가는 코너2

Travel in Koh Rong Island

끼띠들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법

쉬어가는 코너3

개인에세이

5월 일정



Mon

Tues

Wed

Thurs

Fri

Sat

Sun

1 **Holiday**

- 대청소
- 레스토랑 위치 답사
- 회의

2

- Cambodia YMCA 활동가 알레그라와 점심
- 닭갈비, 김밥재료 사오기
- 벌레들에게 테러 당함

3

- CDP Monthly Report 작성

4

- Staff 전체미팅
- 맨, 탄, 세크데이와 레스토랑미팅
- 영어1 & 2, 마을아이들 수업

5

- 탄과의 레스토랑 미팅 → 취소
- 한국어, 마을아이들 수업

6 **Holiday**

- 어덤네와 저녁식사

7

- 어덤과 GreenSchool
- Cooking AttiDay - 닭갈비

8

- 어덤과 GreenSchool

9

- 휴식

10

- 캄보디아 대학생 청년 소피오와 만나기로 했으나 취소

11

- 한국어, 마을아이들 수업
- 35Oppm 이야기 나눔
- 35Oppm 준비

12

- AttiDay - 35Oppm
- 봉환이랑 IFS 진행

13 **Holiday**

14 **Holiday**

15 **Holiday**

16

- 휴식

17

- 35Oppm
- 한국역사 조사 마치고 깐띠끼리 이야기 나눔
- 중간평가 이야기

Koh Rong Island Trip

18

- 한국 역사 ppt 만들기
- 피롬과 미팅
- 영어1&2, 마을아이들 수업

19

- CDP - 하이드로포닉
- 한국어, 마을아이들 수업

20

- CDP - 하이드로포닉
- 영어1&2, 마을아이들 수업

21

- CDP - 하이드로포닉
- Culture AttiDay - 한국역사

22

- 중간평가 & 35Oppm 회의
- 영어1&2, 마을아이들 수업

23

- 대청소
- 피롬부부&친구와 저녁식사

24

- 유스들과 프싸따끄마의 감
- 세린간사님 마중 감

25

- 맨이 부탁한 개인보고서
- 영어1&2, 마을아이들 수업

26

- 한국어, 마을아이들 수업
- 프놈펜 - 프싸트마이, 러시아마켓

27

- 유스들 Feedback 받음
- 탄과 레스토랑 미팅
- 영어 1&2 합반 수업

28

- 유스클럽 미팅
- 까리파스 친선축구경기
- 35Oppm AttiDay → 취소
- 프놈펜 - 리버사이드
- 유스에게 제육볶음 만들어줌

29

- 동민간사님 & 박정환 과장님 마중
- 캄보디아 국민은행 방문
- 중간평가
- 저녁식사

30

- CDP Field 방문
- 프놈펜 - 나이트마켓, 리버사이드

31

- 프놈펜 - 러시아마켓
- 동민간사님 & 세린간사님 & 박정환과장님 배웅

깐피소개 ver.3



눈썹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

찐한 눈썹을 가진 이 깡띠의 팀 내 역할은 과속방지턱이다.
이런 그(그녀)는 무엇인가를 말할 때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하루 나뉘는 시간이나 회의를 할 때면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곤
하는 눈썹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코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

오뎅한 코를 가진 이 깡띠의 역할은 한량이다.
이런 그(그녀)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점이 다소 서툴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깡띠보다 빠른 오뎅한 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마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

맨들맨들한 이마를 가져 팀원들에게 이마를 자주 공격 당하는 깡
띠는 팀에서 행복함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그(그녀)는 팀원들의 의견에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일
을 잘하지 못한다.
시간이 생길 때마다 다이어리와 펜 하나를 들고 어딘가로 이동해
글을 쓰는 이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눈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깡띠의 역할은 포토그래퍼이다.
다른 어떤 깡띠들보다 카메라를 늘 어깨에 두고 사진으로 순간을
남기는 그(그녀)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
고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주인공은 누구일까?

입술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

계란형의 얼굴라인과 예쁜 입술을 가진 이 깡띠의 역할은 행동하
는 사람이다.
이런 그(그녀)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매우 어렵
게 느끼고 힘들어한다.
하지만 누구보다 팀을 잘 이끌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입술
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Youth Develop Program



English 1 Class

5월 영어 1수업은 유스들의 요구대로 문법과 시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간단한 문법에서 시작해서 시제로 수업을 이어갔으며,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따로 단어책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를 했다.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은 영어1수업이 있는 월수금에 캄보디아 공휴일이 많이 있어 수업을 많이 빠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CDP 활동 이후 제 시간에 까리따스로 도착하지 못해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유스들의 출석률이 적어진 것도 수업의 어려움 중 하나였다.

수업에 남은 유스들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 힘들어하는 유스들에게 수업 외의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하거나 쉬운 유인물을 만들어 나눠주기로 하였다.

문법을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유스들이 다소 지루해하는 점이 있어 재미와 설명의 균형을 적절히 잡을 계획이다. 영어 공부를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영어에 더 많이 노출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nglish 2 Class

4월과 마찬가지로 5월에도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수업을 많이 진행하지 못하였다. 5월에는 비교급, 최상급 문법과 회화연습을 하였다. 5월의 큰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월부터 혼자 공부하라고 유스들을 많이 격려한 덕분에 5월에는 유스들이 혼자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에 몇몇 유스들은 혼자하는 것을 체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하나 둘 씩 모여 시작한 '스페셜 클래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페셜 클래스는 평일 점심시간, 주말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유스들 각자에게 필요한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유스들의 성화에 찬투 단원도 매 스페셜클래스마다 캄보디아어 단어 5개씩을 외워야 한다고 한다.

둘째, 그 동안 듣기, 말하기, 문법을 섞어서 진행하던 수업방식에 유스 친구의 피드백이 있었다. 이에 월: 말하기, 수: 문법, 금: 단어 및 표현으로 수업 스케줄을 고정하여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찬투단원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다.



한국어 수업

지난 달, 한글의 자음, 모음, 받침 발음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단어 리스트를 만들어 단어 공부를 진행했다. 유스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할법한 단어들로 구성된 단어장을 만들어 활용했다.

스스로 단어를 읽을 줄 알게 되면서 유스들은 더욱 한국어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배운 단어들로 받아쓰기를 했다. 유스들은 꽤 많이 맞추었고 더욱 공부하고자하는 흥미를 보였다. 매 시간 발음을 복습한 덕분에 유스들의 한국어 발음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평소에도 깐띠들과 까리따스에서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하곤 했다.

한국어 시험(EPS-TOPIK)을 준비하는 유스들을 위한 시간을 이번 달도 크게 내지 못했다. 하지만 휴일에 까리따스에 있을 때 문제 푸는 것들을 도와주었다. 6월 말에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시험 공부를 봐주어야겠다.



마을아이들 수업

이전의 수많은 고민을 딛고, 5월은 체계적으로 마을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려 노력했다. 수업 시간을 20분은 영어 공부로 시작하고, 20분은 미술, 체육, 영상, 위생, 노래를 포함한 재미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아이들이 캄보디아 놀이, 친구 얼굴 굴 그리기, 손 씻기 놀이, 영어 애니메이션 감상을 재미있어 했다. 5월 말부터 '함께 살아가기'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아이들이 까리따스에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깡띠들이 수업 시간 10분 전에 마을로 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까리따스로 오게 되었다.

또한 굳이 아이들이 까리따스로 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깡띠들은 아이들과 놀기 위해 자주 마을 산책을 나가곤 했다.



아띠 데이 - 쿠킹데이

5월에는 총 3번의 아띠 데이를 진행했다. 7일은 쿠킹 데이, 12일은 350ppm, 22일은 한국의 역사 소개시간으로 구성했다.

5월의 쿠킹데이는 닭갈비였다. 미리 양념장과 닭 손질을 한 뒤 유스들에게 가져갔다. 양념장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함께 야채를 손질했다. 불도 뜨겁고 연기도 매웠지만 많은 유스들이 아궁이에서 닭을 볶는 것을 도와주었다. 유스들은 매우 닭갈비를 맛있게 먹어주었다.

한국 음식을 더 먹고 싶어하는 유스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을 조금씩 가져갈 생각이다.



아띠 데이 - 350PPM

첫 350ppm데이 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 5월의 350ppm데이 때에도 350ppm과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탄과 영어 선생님 소니의 캄보디아어 통역 도움을 받았다. 350ppm을 알리는 짧은 영상도 직접 촬영하여 보여주었다.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 실태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캄보디아에는 수질 오염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스들은 까리따스 주변의 쓰레기를 함께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깐띠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배운 환경 수칙과 반성들도 나누었다. 깐띠들은 빗물로 손을 씻고, 휴지대신 걸레를 사용하는 행동들을 배웠다. 마지막에는 추후의 350festival과 환경의 날 계획을 함께 의논해보았다.

통역을 거치는 힘든 점이 있었지만 제대로 350ppm을 설명하고, 유스들이 환경 문제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었다.



아띠 데이 - 한국 역사

유스들은 '한국'하면 대표적으로 부자, 강남스타일, 김치를 떠올린다. 하지만 깐띠들은 식민지 시절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랜 회의를 거쳤다.

통역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사전에 번역을 하여 부족하지만, 캄보디아어로 발표를 하였다. 식민지, 한국 전쟁, 민주화 운동, 대중 문화의 발전, 현대 사회의 문제 등을 말해주었다. 서툰 캄보디아어로 소통이 힘들었지만 유스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에 흥미로워했다. 이 시간을 통해 유스들도 그들의 사회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했다.

한국 역사를 이야기해준 뒤,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어떤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서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발표했다. 깐띠들은 유스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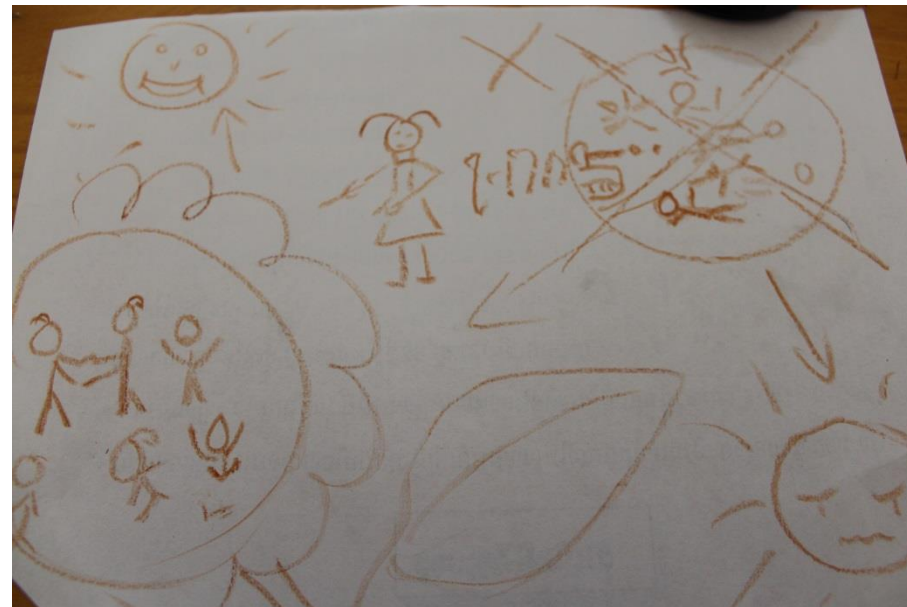


우리가 꿈꾸는 사회

참여한 유스들 모두가 진심 어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그 중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더 나은 세상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는 세상이에요. 평화롭고, 미움이 없고, 나라들끼리 소통이 잘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높은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나무들도 베어지지 않았으면 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애기 위해서는,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도와주어야 하고, 가난한 나라 정부는 부정부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사람들이 싸우는 세상은 해님 신이 슬퍼해요.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함께 사이 좋게 사는 세상은 해님 신이 웃고 있어요.
아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세상이 되길 바라요.



Community Develop Program



그린 스쿨 프로젝트 - 앙스누얼 학교

5월, 카리타스는 정부 부서로부터 앙스누얼 학교에 카리타스의 CDP 기술들을 공유해달라고 요청 받았다. 하이드로포닉과 시멘트포대 채소기르기 등 카리타스의 여러 농업 기술을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주로 스태프 어덤씨와 Community Development 반 학생들이 가서 작업을 하였는데, 아띠들도 5월 7일과 8일, 2일 동안 참여하였다. 앙스누얼 학교의 학생들도 아띠들을 도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였다.

5월 말, 그린 스쿨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앞으로도 앙스누얼 학교의 학생들이 하이드로포닉과 시멘트포대의 채소들을 잘 가꾸어주기를 바란다.

일하다 학교 앞 구멍가게에서 사먹는 사무라이의 맛이란 ... 카



하이드로포닉

4월에 이어 5월에도, 따웃마 마을의 왕 할머니 댁에 하이드로포닉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다.

5월 19, 20, 21, 총 3일 동안 진행하였다. 4월에는 나무 기둥을 심어 기초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면, 5월에는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 연결하고, 영감을 태워 만드는 등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을 하였다.

5월 말 현재, 물 호스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6월 첫 주에도 계속 작업하여 완성시킬 예정이다. 설치 과정이 진행될 수록 농부님의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의욕이 늘어나는 것 같아 아띠들도 기분이 좋다고 한다.

불 앞에서 작업하는 것에 대비하여 .. 아띠들은 물안경을 썼다고 한다.



하이드로포닉, 어떻게 만들까?



1. 기초 구조 틀을 만든다. 땅을 파고 시멘트로 나무기둥을 고정한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나무 높이를 맞춘다.



2. 기둥 위에 지붕을 만든다. 지붕은 초록그물로 연결한다. 페트병이 올라갈 나무판을 연결한다.

하이드로포닉, 어떻게 만들까?



3. 새싹을 심을 엉감을 만든다. 엉감은 쌀겨를 골고루 태워 만든다.



4. 새싹이 들어갈 페트병을 만든다. 도구를 불에 달구어 페트병을 녹여 구멍을 뚫는다. 연결한다.

쉬어가는 코너 1

더위에서 살아 남기



이 곳 캄보디아의 5월은 유난히 더웠다. 5월의 연휴 동안 깐달을 떠나있던 깐띠들이 돌아왔을 때, 밤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깐달은 흡사 찜질방? 한증막? 습식사우나?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이후 CDP 활동을 하며 깐띠들은 급격하게 지쳐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깐띠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던 4가지 비법! '깐띠들이 더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에어컨

더위에 지쳐 힘이 빠진 깐띠 들은 대형 마트나 카페에서 잠시나마 에어컨을 즐긴다. 350ppm을 실천하는 라온아띠로서 에어컨이 지구온난화의 큰 주범이라는걸 알지만 에어컨의 냉기는 가히 치명적이다.



전 여기서 하루 자고 갈게요

언니 여기가 천국이야?

응

여기 찜질방 출구가 왜 없어?

두 번째. 이열치열

우리가 하는 CDP일은 불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다.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불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치 한증막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마시기

시원한 맥주와 사무라이 그리고 큰 마음 먹고 장만한 믹서기로 만든 망고 셰이크는 더위에 지친 간디들에게 잠시나마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내 사랑 맥주~♡

내 사랑 믹서기~♡



네 번째. 포기하기

우리의 발악에 아랑곳 하지 않고 더위는 계속 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포기하면 된다. 포기하면 편하다. “캄보디아가 덥지 그러면 춥나”

하...누가 히터 좀 꺼라

김민주(22)
“죽겠어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프로젝트

까리따스의 레스토랑 사업은 라온아띠 10기부터 시작되었다. 레스토랑을 통해 따끄마 지역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까리따스를 알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까리따스 활동 YDP, CDP에 모두 이익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

YDP 프로그램으로서는, 까리따스 요리반 유스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유스들이 직접 레스토랑을 관리하고 요리를 하게 된다. 내부에 페인팅 클래스 유스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다. 또한 CDP 농부님들의 야채를 레스토랑으로 공급함으로써 농부님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깐띠들도 이 레스토랑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의미에 크게 공감하여 레스토랑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13기 깐띠들이 오기 전까지 최종 계획서가 완성된 상태였다. 깐띠들은 레스토랑 계획서를 실현시키는 데에 힘을 쓰기로 했다. 몇 차례 담당자 땀, 탄과 미팅을 하였고, 현재는 좋은 위치의 가게를 찾았고, 가계약을 하였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정 짓고, 레스토랑에서 일할 유스들을 트레이닝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레스토랑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4월 10일	지난 기수들의 레스토랑 계획서를 살펴보았다. 깐띠들은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계획서를 수정하기보다는 실행에 옮기는데 초점을 맞추어 레스토랑 사업을 돕기로 했다. 13기 활동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5월 2일	까리따스는 적당한 가격의 레스토랑 위치를 못 찾고 있었다. 깐띠들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크게 돌면서 관참을 만한 레스토랑 장소를 찾고, 사진을 찍어 PPT로 만들었다. 많이 찾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들의 노력에 스텝분들이 인상깊어 하셨다.
5월 10일	레스토랑 담당자 맹, 탄씨와 레스토랑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이었다. 깐띠들은 레스토랑 예산 계획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또한, 레스토랑 컨셉을 코코넛에서 연잎인 로투스스로 바꾸는데 합의했다. 코코넛은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연잎이 까리따스의 YDP, CDP와 라온아띠, 국민은행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로투스스로 하자고 하였다.
5월 12일	따끄마으 시장으로 가는 길에 좋은 위치를 발견했다. 탄씨와 찬투 단원이 함께 가서 장소를 보고 집주인을 만났다. 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더 좋은 위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선불리 계약하지는 않았다. 가계약비를 조금 내고 주인과 합의해 6월 첫째 주에 2년 짜리 계약을 할 지 말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5월 22일	레스토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리반 유스들과의 미팅을 진행하였다. 본격적으로 어떤 유스가 얼마나 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일 할 시간이 있는 유스들과 요리 경험이 많은 유스들이 달라 미래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유스들 모두가 서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보여 깐띠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5월 29일	프놈펜에 위치한 레스토랑, 롬뎅에 방문하였다. 롬뎅은 프렌즈인터네셔널이라는 NGO에서 만든 레스토랑으로, 길거리 유스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NGO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산한 기념품들을 팔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NGO가 만든 사회적 기업, 레스토랑으로서 꽤 성공적인 사례이며 까리따스가 추구하는 바와도 같아서 탄씨가 탐방을 부탁하였고, 덕분에 깐띠들은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중간평가



중간 평가

5.29 ~ 5.31. 총 3일간 중간 평가를 진행했다. 중간 평가를 준비 하면서 우리가 그 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고, 무슨 생각들을 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공항에 마중 나가는 것부터 모든 스텝들 앞에서의 중간 PT, 국민은행, CDP 마을들 방문 등이 있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간사님들과 팀 면담, 개인 면담을 하였는데, 덕분에 우리의 시선이 아닌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중간평가를 위해 깐띠들은 유스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우리 활동에 대한 피드백 설문을 진행하였다. 스태프 피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깐띠들은 '그 동안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항목을 넣었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에 힘이 나기도 했지만 부족한 점에 대한 말들에는 마음이 상하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들을 가깝게 느끼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다는 것이기에 유스들에게 고맙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깐띠가 되고자 한다.



3일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으면서도, 길다면 긴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 덕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를 격려 하기 위해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시간 날 때마다 물어봐 주신 박정환 과장님께 감사하다. 단순히 평가자를 넘어서, 또 한 분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불철주야 우리의 면담 상대가 되어주신 정동민 간사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다.

내생의 가장 뜨거운 날들을 더 뜨겁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녀의 이름은 여세린

그녀의 이름은 여세린. 수원 YMCA 사회교육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라운아띠 캄보디아 5기로서 우리들의 캄보디아어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5.24 ~ 5.31 일주일 동안 우리들과 생활했다. 마치 우리와 3달간 생활한 팀원처럼 위화감 없이 7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남성 단원들에게는 누나 같이, 여성 단원들에게는 언니 같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주시며 3달간의 활동으로 지친 깡띠팀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해줌으로 배부름의 바다에서 허덕이게 만들어 주셨다.

먼 과거 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를 좋아해주고 예뻐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



쉬어가는 코너 2

하루나눔 지분



간띠들은 매일 저녁 하루 동안의 일들, 느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활동하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함께 나누고 싶은 것, 혹은 논의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3개월의 하루나눔 시간들 동안, 어떤 간띠가 얼마나 하루나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순위로 나타내보았다.

하루나눔 때 한마디 더 한 거뿐인데... 제가 일등을 차지하다니 참 감격스럽네요. 이 영광을 우리 팀원들에게 바칩니다. 좋은 건가..?

소피읍



내가 좀 말이 많긴 했지! 다들 분발하라구!

찬투



소감?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3위가 됐네요.

마까라



썩지읏



4위에 대한 소감.. 말은 아낄 수록 좋은 것이다. 첸들러가 말했죠.

쓰라이티



음..... 내가 그렇게 말을 안했나?

Travel in Koh Rong Island

Cambodia

에메랄드 빛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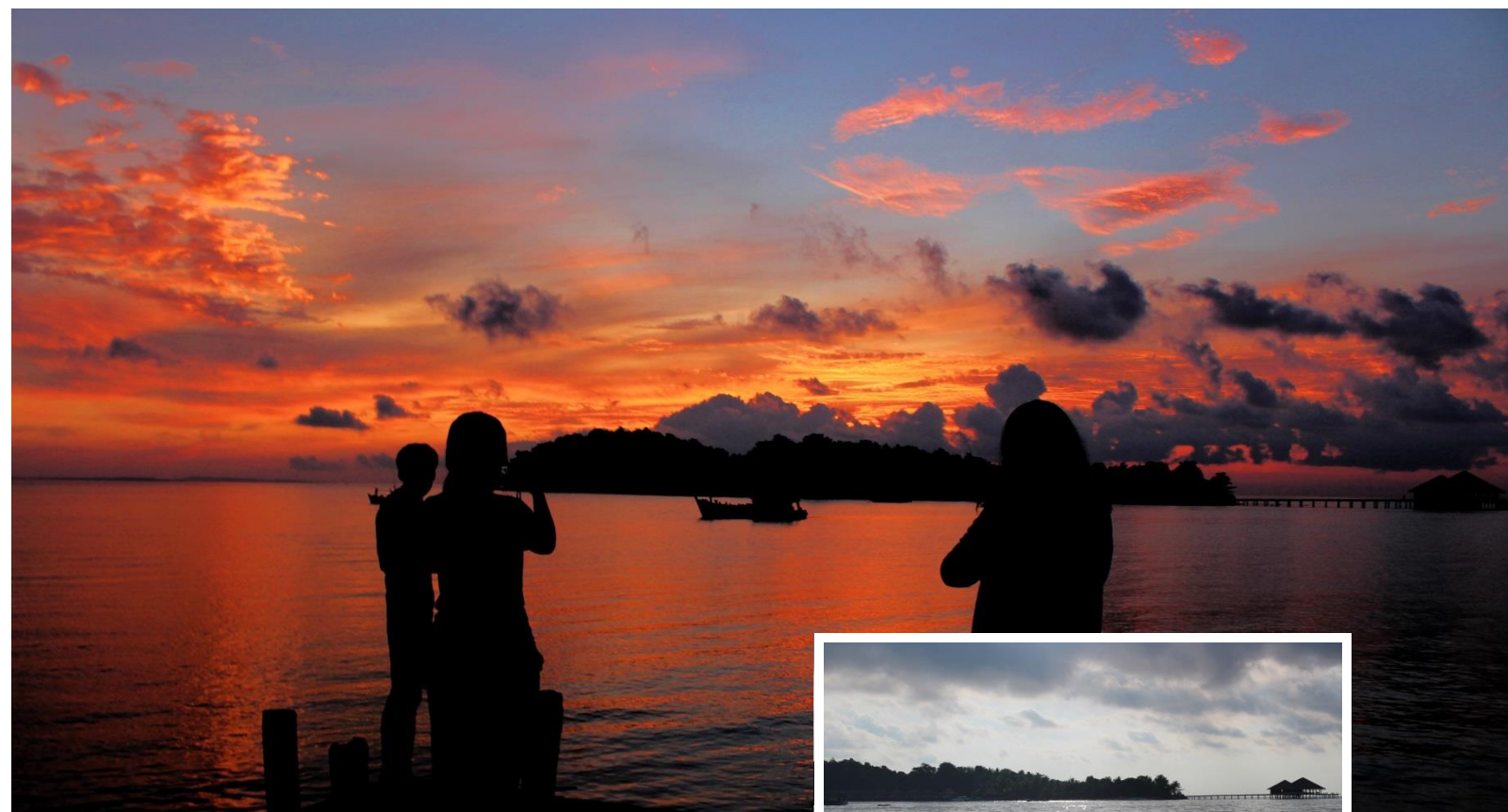
자동차로 5시간, 배를 타고 다시 3시간을 가야 들어갈 수 있는 코롱 섬(Koh Rong Island). 우리들은 또 한번의 연휴를 맞아, 2박 3일간 시하누크에 위치한 코롱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섬이라는 특성상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물가도 육지에 비해 굉장히 비쌌다. 그러나 코롱 섬은 그런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푸른 하늘, 야자수와 하얀 모래사장과 같이 사진 속에서만 보던 풍경이 우리들의 눈 앞에 펼쳐졌다.

해먹에 누워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한적한 해변에서 자유로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곳, 별을 많이 볼 수 있는 곳.

세상에는 이런 곳도 있더라



깁띠들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법





Episode 01

어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덤의 아내 레아의 생일이 곧 다가옴을 알게 된 간띠들!! 평소 레아가 김밥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 김밥을 해서 레아의 생일 전날 휴일에 생일파티를 하였다. 지수간띠는 참치김밥을 현정간띠는 베이컨김밥을 만들고 케이크와 망고빙수와 맥주와 함께 레아의 생일 파티를 하였다. 이날 어덤이 캄보디아 전통주를 나누어주면서 한잔씩 한 것은 안 비밀!

Episode 02

간띠들의 친절한 언니, 봉 피룸.
하지만 그녀는 너무 바빠서 간띠들과 붙어있는 시간이 적다. 늘 아쉬웠던 간띠들은 피룸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했고, 우리는 프놈펜 리버사이드에서 2시간 동안 배를 타고 저녁을 먹었다. 월드비전에서 일하고계신 피룸의 남편 디나와 바탐봉에서부터의 피룸의 절친 킴레잉과 함께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와 재미있는 해프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pisode 03

간띠들의 집 앞에는 어덤의 작은 레스토랑이 있다. 미차와 미초, 브러햇을 파는 이곳은 저녁이면 종종 까리따스 스텝들의 술자리가 형성되곤 한다. 한번쯤 같이 어울리고 싶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어덤, 탄, 봉 환과 썸낭과 지수간띠와 승일간띠가 함께하게 되었다.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일하는 동료가 아닌 친구 집 평상에 앉아 수다 떠는 것 같아 너무 좋았던 기억이다. 앞으로도 종종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앞마당이 복잡복잡해지면 나가보곤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pisode 04

따끄마의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간씨는 교통수단이 잡히지 않아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한 아저씨 아줌마가 따끄덜 마을에 가냐고 물으셨고 공짜로 데려다 준다고 하셨다. 불안함을 안고 올라탔지만 다행히 우리가 사는 따끄덜 마을에 도착하였다. 놀라운 것은 두 분이 매우 익숙한 동네 꼬마씨이하의 부모님이셨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간씨를 먼저 알아보시고 친절을 베풀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With Allegra



Episode 0b

저녁이나 오후5시쯤이 되면 민주간씨와 승일간씨는 종 종 집이나 까리따스에서 사라지곤 한다. 그럴 때면 두 간씨들은 어김없이 마을아이들과 동네 어귀에서 놀고 있다. 모든 간씨를 볼 때마다 “처~(Teacher의 줄임말)” 하면서 따라오는 아이들이지만 특히 민주간씨와 승일간씨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이러한 3개월의 생활로 민주간씨는 잃어버렸던 아들 ‘웨잉’을 찾고, 승일간씨 역시 잃어버렸던 동생 ‘보웃’을 찾았다고 한다.

Episode 05

얼마 전 아띠들은 캄보디아 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알레그라(Allegra)를 만났다. 한국과 대만을 여행하고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알레그라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캄보디아에 들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군 가산점, 성 역할과 같은 한국 사회에 대해 그리고 캄보디아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3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돼지국밥과 떡볶이가 그리운다는 그녀를 위해 6월 쯤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할 생각이다.

Episode 07

저녁 무렵 동네에는 아저씨들이 모여서 카드게임도 하시고 맥주도 마시시곤 하신다. 어느 날 몇몇 간씨들이 동네 작은 슈퍼로 캄보디아 맥주를 사러 가고 있었을 때, 아저씨들께서 캄보디아 술을 한잔 먹어보라고 같이 마시자고 하셨다. 어떻게 보면 낯선 이방인인 우리에게 먼저 이것저것 권해주시고, 늘 우리의 인사에 밝고 환한 웃음으로 응해주시는 동네 이웃 분들 모두가 너무 좋다.

승일간씨 동생 ‘보웃’

민주간씨 아들 ‘웨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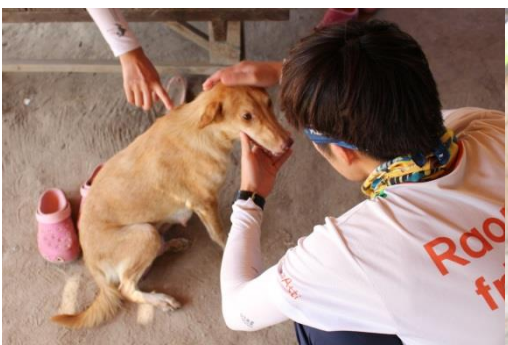
Episode 08

CDP 활동을 하러 깐띠들은 특특으로 30분 떨어진 마을로 간다. 마을에 도착하면 엄종 할머니 덕 강아지 또니가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준다. 엄종 할머니는 우리에게 계속 12기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신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왕 할머니는 한 달이 되어서야 우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계속 맛있는 음식을 주신다. 왕 할머니 손녀 간지나는 계속 혀를 내밀고, 옆집 아기 까까는 귀여운 얼굴로 손을 흔들어 준다. 점심 시간에 연유커피를 맛있게 하는 식당으로 향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사말을 건넨다. 조그만 TV 때문에 동네 영화관이 나 다름 없는 식당에 앉아, 우리는 달달한 연유커피 5잔을 시킨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 우나나 다름 없는 CDP 활동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다.

여자가띠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고 있는 옆집 아기 '까까'

너 이름은 '간지나'



Episode 09

깐띠에서의 생활 3개월 차.

유스들과 깐띠들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원섭깐띠는 유스들과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전달했고, 민주깐띠는 시간이 날 때마다 2층 페인팅클래스에서 유스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또 승일깐띠는 까리따스 축구팀으로 함께 친선경기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현정깐띠와 지수깐띠는 여자유스들과 리버사이드로 놀러 나갔고, 특히 현정깐띠는 기숙사에서 유스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유스들과 친해질수록 유스와 아띠가 아닌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 나에게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다.

Episode 10

350ppm 전야제로 준비했던 350ppm Festival 준비를 위해 유스들과 함께 장을 보고 선물을 준비했다. 깐띠들 위주의 진행이 아닌 함께 하기 위한 시간을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까리따스 친선축구경기로 인해 350ppm 전야제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쉬어가는 코너 3

우리의 행복을 소개합니다

이번 쉬어가는 코너에서는 각 끈띠들이 캄보디아에서 가장 애정하는 것을 소개한다.
각자에게 어울리는 캘리그래피와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들로 구성하였다.
심장이 약하신 분은 패스해도 좋다.



나의 행복을 소개합니다. — 썩찌웃 단원

제 행복이자, 에너지는 바로 카메라와 다이어리에 끼어있는 사진들입니다.

대로는 팀원들이 사진 좀 그만 찍으라고 할 때도 있지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카메라를 잡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제 영혼의 일부인걸요.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찍은 사진으로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담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순간의 행복을 담습니다.

나의 행복을 소개합니다. - 쓰라이 띠 단원



제 행복은 ... 사무라이 음료수, 연유커피, 그리고 앞집 아기 비사이입니다. ㅎㅎㅎ
 사무라이 음료수와 연유커피는 캄보디아에서 처음 먹어보았는데요.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그 맛 ... 천국의 맛이 있다면, 이런 맛이 아닐까 합니다... 또, 앞집 아기 비사이는 제 짝사랑의 상대인데요. 누구보다 시크한 그녀이지만, 그녀가 웃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행복합니다.



치명적인 매력, 비사이(만 3살)



일하다가 링겔(사무라이) 수혈중



삼겹살엔 소주

나의 행복을 소개합니다. - 소피음 단원

제 사랑은요. 바로 하늘과 마을아이들입니다.

매일 하늘을 보면서 이 곳이 캄보디아라는 걸 느끼곤 해요. 항상 변하지만 언제나 아름다운 구름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마을 아이들. 저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주지만 아이들과 있으면 그 순수한 웃음에 물들게 되는 것 같아요... ^3^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ㅈ

나태주, 풀꽃

나의 행복을 소개합니다. - 마까라 단원



제 행복은 다양한 경험입니다. 캄보디아에 와서 저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팀원들을 만난 것, 유스들과 관계를 맺는 것, 스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cdp일을 해보는 것,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 ...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하지 못했을 멋진 경험들 덕분에 저도 더욱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군대에 있다가 세상에 나온 23살의 나. 지금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은근히
잘되리라

개인에세이



5월, 캄보디아에서 조금만 더 살다 가고 싶다는 말을 참 많이도 했다. 5월의 나는 너무 행복했는데, 두려웠다. 이 곳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는데. 어차피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해 마음이 힘들었다.

팀원들은 물론이고. 유스들과도 점점 감정의 교류를 하며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 애증이다. 멀리 있을 때는 마냥 아름다웠던 것들이, 가까워질 수록 그렇지 않은 않다. 오해가 생기고, 짜질해지고, 갈등이 생긴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걸까? 나는 왜 너무 좋아질수록, 동시에 미워지기도 하는 건지.

1. 어느 날 1. 유스 친구가 지금 찬투 너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는데, 우리 때문에 억지로 웃으려 하는 것 같다며,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갑자기 웃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이야기는 하나도 웃기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정말 크게 웃었다. 한 동안 자려고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나서 웃었다. 사요나라 - ㅋㅋㅋ
2. 어느 날 2. 한 유스 친구가 와서 왜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냐며 다짜고짜 내게 화를 냈다. 결국 오해는 풀렸지만, 그 순간 나는 억울한 마음에 짜증을 냈다. 내가 너에게 왜 거짓말을 했겠어, 나는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건데. 날 그렇게 오해한 친구가 미웠다.
3. 어느 날 3. 갑자기 친구가 내게 불평을 했다. 너는 나보다 행운아라고. 너는 해야 하는 일은 적고,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3년이나 쉬어야 하지도 않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섬유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너는 잠시 여기 봉사하러 와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앙코르와트와 코롱섬도 가보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살아오게 만든 세상이 미웠다. 이 세상도, 무기력한 우리들도 미웠다.
4. 어느 날 4. 애들이 수업하지 말고 놀자고 애교를 부렸다. 야외 수업을 빙자하여 옥상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게임을 하고, 춤을 추며 놀았다. 애들이 웃는 모습이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한국에서 무언가를 소비해야만 놀 줄 아는 우리에게 비해, 아무 것도 없이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이들. 그 순간, 너네가 나보다 더 행운아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 날, 하늘도 너무 예뻐고. 애들도 너무 예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사랑과 미움은 한끝차이라고 했던가 ...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라고 포장은 못하겠다. 음. 적어도, 지루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들, 시간들, 기억들, 더 많이 공유하며 쌓아가야지.



지수_스라이피

#공통점 #다른점

처음 나는 우리에게서는 공통점을, 이곳의 모든 것에는 다른점만을 보고 있었다. 그런 내가 요즘 우리에게서는 다른점을, 이곳의 모든 것에는 공통점을 자주 보고 있다.

#집 #짓기

내가 살 집을 직접 짓는 사람들. 어떤 집을 지을지 고민하고, 꿈꾸던 집의 모습을 보면 자주 발걸음을 멈춰서서 멍하니 서 있는게 되는.. 예뻐 보였다. 높던 낮던 큰 상관이 없고, 크던 작던 마당을 두고 철되면 마당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공간에서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꿈꾸고 있을 어느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파스해 보여서.. 그냥 자꾸 미소가 나왔다. 한국에 사는 나에게는 너무도 사치일 모습이.. 내가 살 내 집을 지으려면.. 너무도 분명히 나에게도 오랜 꿈이었으나 너무 현실적인 이유가 나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거 같았다.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 나와, 분명히 이를 거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이 괜스리 부러움으로 가득 찼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 서로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선물 #받아들이는 #의미

내가 선물은 숫자 몇 개의 의미가 아닌데.. 내가 조금 버겁더라도 받을 사람이 즐거워하면 그게 좋은 건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부담일수도 있다는 생각. 왜 이곳에서 나는 선물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지 캄캄했다. 사실 아직도 모르겠다. 여전히 알 수 없다.

#고민 #의미없음

캄보디아에 오기 전 나의 고민에 대해 많이 고민해본 한달. 나의 결론은 그냥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내 고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돌아가도 해답을 찾지 못할 고민이라는 생각. 적어도 내가 하고픈 일에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한 나였지만 그조차도 나에게 불확신의 의미로 맞닥뜨리고 끊임없이 되묻는다.

#친구

진심이 전해지는 친구가.. 그냥 말뿐인 친구, 이름과 나이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정도 아는 친구가 아닌 너의 어떠한 사정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다가와 내가 나의 상황을 덮어버릴 수 있는.. 너 때문에 종종 큰 웃음을 짓고, 살며시 미소 짓고, 간간히 눈빛이 흔들리고 어쩌다 평평 울게 되는 그런 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

#칠교놀이 #조각 #그때그때 #다른그림

그래 그깟 칠교놀이도 단지 7개의 조각으로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러하겠지. 원하는 그림이 맞춰지지 않아 답답한 칠교놀이의 어느 한 그림을 맞추고 있는 중일까.. 안되면 안되는 모습 그대로, 깨지면 깨지는 대로 그렇게 그때마다 다른 그림을 만들어가면 되겠지

[낯선 5월]

5월이란 단어가 이렇게 낯설기는 처음이다. 5월이 오는 게 싫었나보다. 하고 싶은 것은 많아지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행복을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기대에 담아두곤 한다. 그런데 현재의 행복에 취해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곤 두려워졌다. 5월은 그렇게 불안함 속에서 살았다. 이 곳,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고민과 감정과 이 일들이 잠시 후면 연극이 끝난 것처럼 멈추게 될 까봐 두려웠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마음이 너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음을 느끼고 화들짝 놀랐다. 그리곤 멍하다.

사랑하면 사랑할 수록 마음 한 켠엔 두려움도 커진다. 그것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상상하면 ...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쓸데없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 다가올 이별의 순간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견딜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 사랑한 만큼 슬픈 것이라고 말했다. 먼 훗날의 슬픔은 미뤄두고 지금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살아간다는 건]

살면서 이렇게 도움에 대해 고민해본 적은 없었다. 돕는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냥, 부대끼면서 살기로 했다.

이여이와 파고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앞집 레아와 수다를 떨고, 마을 아이들과 흙을 묻혀가며 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빈 공간과 나의 빈 공간이 채워지길 바라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

하지만 나로 인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은 여전한 나의 욕심일까 그들이 그리워할 그 순간들 중 한 번 쬐은 내가 존재하기를.

[사랑한다는 것]

나는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욕심부렸고, 오해했고, 오만했다.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흘려 보낸 날이 많았다.

한 번 더 바라보고, 마주하고, 귀 기울여야지.

“조금 가난한 색. 그래서 그 위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색.”

“조금 모자란 색.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색.”

#1. 떠들썩한 중간평가가 끝났다. 2개월 남았다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이 안 난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밀린 보고서 쓰고, 마을에서 일하고, 영어 수업을 한 번 하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있다. 매 순간 나는 여기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

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좋다. 고민들의 상당수가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2.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더 많은 걸 보고, 경험하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대학생이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사진이나 글쓰기와 같이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하는 일을 했는데 난 학교에서 유별난 학생이 되어 있었다.

내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순간 '다르다'와 '유별나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나는 지지를 받기는 커녕 '다르다'라는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 걸까? 정말 싫었다.

그래서 나는 지난 2년 동안 입을 다물었다.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최대한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3. 매일 저녁 하루나눔 시간에 나는 최대한 말을 아낀다. 그러나 팀원들은 내 생각이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내기를 원한다.

매일 나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3, 4월 그리고 특히 5월에 나는 팀원들과 주변인들에게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100%는 아닐지라도 나는 조금씩 조금씩 나를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

내 생각이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 남은 2개월 나의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

5월에 비가 많이 와서 비에 익숙해 졌다.
반면 익숙하지 않은 나의 행동들이 있다.

다가가는 것. 반겨주는 것.

다가가는 건 조심스러워 잘 다가가지 못한다.
다가오는 건 부담스러워 잘 반겨주지 못한다.

많이 다가가고 싶고 많이 반겨주고 싶은데
익숙하지 않아 잘 그러지 못한다.

4월에 오지 않던 비가 5월에 많이 와서 익숙해지는 것 처럼
조심스러운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많이 다가가고 많이 반겨주려 하는
나의 노력으로 인해 익숙해졌으면 한다.

비가 오고 나면 부는 시원한 바람에
사람들이 잠시나마 기분 좋은 것처럼
익숙한 나의 행동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분 좋은 바람이 되었으면 한다.

승일_마까라





6월에 만나요